

창간 100호 특집 오리마을 「그때 그 시절」

월간 오리마을은 1992년 7월, 협회 창립 이래 국내 오리 업계의 실상을 관련업계 및 기관 등에게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오며 국내 유일무이한 오리산업 전문지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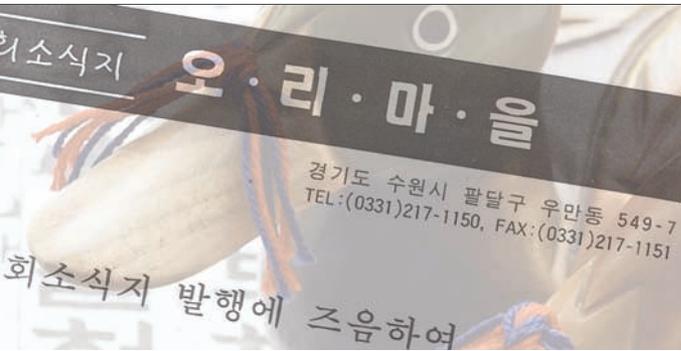
월간 오리마을이 창간될 무렵 국내 오리업계는 96년 97년 장기불황으로 인해 사육량이 감소한 데다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재개 되고 1997년 IMF라는 경제 최대 위기를 맞는 등 불황의 고배를 마셨다. 당시만 해도 오리산업은 타 축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았지만, 그렇기에 오리업계 종사자들은 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힘든 여건 속에도 협회는 더 많은 사업을 전개해 나가자 다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협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협회 창립 4년만인 1996년 4월 15일, 오늘의 월간 오리마을을 발간하게 된다.

오리마을에는 당시 축산 정책상황, 오리업계동향, 협회 동정 등 오리산업의 모든 현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오리산업과 함께 커 온 오리마을은 오리산업의 발자취이자

한국오리협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오리산업이 불황을 겪던 시기, 오리마을 또한 발행 중단이라는 시련을 겪었다.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었던 오리마을이 2006년 월간으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매월 차질 없이 발행되는 것은 오리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한다.

협회는 월간 오리마을 통권 100호를 맞이하여, 창간호를 찾아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다. 협회와 동고동락해온 오리마을 속 연도별 주요뉴스로 당시 오리산업을 들여다 보고, 오리마을이 창간 이래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오리마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보자.





◎ 오리마을 연혁

1996. 04. 15 제1호 창간
2006. 07. 월간 오리마을 발간(격월간에서 전환)

◎ 오리마을 속 연도별 주요뉴스

1990년대

1996

제1차 이사회 개최
... 각 분과별 위원회 설립, 협회 회보지 발행(1996.04.15 제1호 수록)

당 협회는 지난 4월 29일(1994.04.29) 협회사무실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협회 회보지 발행, 각분과위원회 활동 강화를 추진키로 의결하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내용은 매월 정기적으로 업계의 각종정보와 협회 활동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협회지를 정기간행물 형태가 아닌 우편물로 발행하여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또 현재 각 분과별로 부회장제도를 두고 있는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각 분과별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각 지회별로 당면한 현안문제

를 토의하고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사육분과, 부화분과, 유통분과, 토종오리분과 등 4개이며 각 분과별 위원은 사무국이 각 지회와 협의하여 선임키로 했다.

1998

제2차 이사회 개최
... 협회 사무실 확장이전(1998.06.15 제2호 수록)

협회는 지난 5월 28일 업무활성화를 위해 사무실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으로 확장이전하고, 이전한 사무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 재개 저지에 대한(안)과 북한산 오리고기 수입문제에 대한(안)이 중점논의 됐다. 이날 이사회는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경우 오리업계의 불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북한산 오리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서는 협회가 적극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육농가, 부화장, 유통업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장규호고문, 안희복회장, 조징, 정기복, 이현주, 양성현, 나원주, 이종열, 이선경, 윤천수 등 11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집중탐구

창간 100호 특집오리마을 「그때 그 시절」

2000년대

2000

국내 최초 오리고기 KS인증품 출시(2000.05.15제16호 수록)

오리고기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를 인증하는 KS 인증품이 나와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전남 나주 (주)화인코리아(대표 원원주)에서 신청한 한국산업규격표시(KS)에 대하여 인증심사한 결과 산업표준화법 규정에 적합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를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한식연 제 200-2호로 인증된 이 인증서에 따르면 인증품의 종류는 통오리와 오리정육 2가지 종류이다.

2001

오리전염성 간염 가축전염병에 포함(2001.10월호 제25호 수록)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및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종합 관리된다. 농림부는 지난 7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이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법 제3조의 2에서 근거하여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물목욕, 투약, 이동제한, 가축사육시설의 소독,

차단 및 가축이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 발생 실태조사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됐다.

2002

일본에 오리고기 201톤 수출(2002.01월호 제27호 수록)

지난 2001년 10월 25일 오리고기 10톤이 일본으로 수출된 데 이어 지난 연말까지 3개 업체에서 201톤의 오리고기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화인코리아가 122.6톤, 75만불어치를 수출하였으며 혜성농산이 73.67톤, 36만4천불어치, 모란식품이 5톤, 2만5천불어치를 수출 총 수출금액은 1백14만9천불에 달했다. 이와 같이 지난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오리고기가 수출된 것은 일본의 오리고기 주요 수입국인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해 위생문제를 들어 지난 2011년 6월 취한 수입중지조치를 풀지 않은데다 국내 산지오리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가 높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3

오리데이(5.2) 탄생, 행사 개최(2003. 5. 2 개최)

한국오리협회와 농협중앙회는 오리고기의 높은 불포화지방산과 양질의 단백질 구성으로 현대인의 건강식으로 더 없이 훌륭한 식품임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매년 5월 2일을 오리고기 먹는 날, 오리데이(5·2

DAY)로 정하고 대내외적인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5월 2일, 양주시에 위치한 대장금 테마파크에서 오리데이 페스티벌을 개막하고 오리고기 시식회를 개최하여 오리고기의 우수한 맛을 알리고,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도모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매년 5월 2일, 오리데이 개최를 통해 오리고기가 소비자에게 한 발 더 다가서서 대중화된 육류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2004

협회 사무실 이전...서울 강서구 방화동(2004년 11/12월호 제 29호 수록)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현판식을 개최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김규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오리업계는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불황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산업기반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협회는 이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회원들의 권리보호와 이익대변은 물론 나아가 오리산업의 재건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농가 및 관련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05

오리 부화업계 상생길 선택(2005년 5월호에 수록)

오리 부화업계가 수직계열화업체와 일반부화장간 적정

한 새끼오리 생산으로 종오리 개량과 수급안정을 동시에 모색하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오리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확보됐다. 협회는 지난 5월 6일 전국 부화장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자오리에서 생산된 종란을 이용해 새끼오리를 생산하여 오리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가기로 했다. 또 수직계열화업체의 부화장은 자체 수요물량의 70%의 종자오리만 확보하여 새끼오리를 생산하고 나머지 30%의 물량은 일반 부화장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를 구매하고 일반 부화장은 수직계열화업체에서 요구하는 30% 새끼오리 물량을 협회를 통해 차질 없이 공급하여 부화장 형태별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2006

월간 오리마을 발행 ... 협회 홈페이지 신규 개설(2006년 7/8월호에 수록)

협회는 비정기적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오리마을을 2006년 7월부터 월간으로 전환, 회원 및 업계종사자 정부기관 등에 배포하며 배부수도 1,200부를 상회할 정도로 성장했다. 앞으로 오리마을 매월 발행을 통하여 유익한 기술과 기자재정보, 유통정보, 가격 등 각종 통계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양축경영에 큰 보탬이 되고자 한다. 또한 협회는 지난 6월 22일 홈페이지 제작 전문업체 농업디자인센터와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 신규 개설 준비를 해왔으며, 8월 개설하게 되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새로운 소식을 신속히 전달 할 뿐만 아니라 여러 회원

의 생각을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기고함으로써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7

오리 자조금 사업 실시

2007년 2월, 한국오리협회 제17차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통해 사육·부화·계열유통·가공 등 오리사업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협회 대의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오리자조금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통해 자조금 조성 및 사업규모를 1억원 (자체5천만원, 정부지원 5천만원)으로 하여 자조금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 오리자조금 사업은 회원들의 협조로 당초 조성목표를 달성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오리고기 요리개발과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 요리책자를 발간하여 소비자들에 배포하였고, 오리산업 처음으로 공식 매체를 통한 광고(라디오 광고 및 지하철 이미지 광고)와 산업종사자 대상 방역 교육을 실시하였다. 첫발을 내딛 자조금 사업을 통해 고병원성 AI로 인해 떨어진 소비를 끌어올리고 오리 고기를 대중에 알리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산업 종사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오리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줄 자조금 사업이 첫 단추를 꿰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자조금사업을 통한 소비홍보촉진활동으로 AI로 급감한 소비회복을 위한 노력을 꾀할 것이다.

2008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 실시(2008년 9월호에 수록)

오리산업은 건강기능성 육류소비 확대에 따라 해마다 생산량이 늘고 있으나 생산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격안정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실시했다. 협회는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전국 오리 사육 농장 및 부화장에서 육용오리 및 종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종자오리의 입식부터 경제주령이 끝나 폐기까지, 부화장의 종란입식 및 새끼오리 생산자료를 조사하여 오리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자오리 사육농장의 종란 생산성, 부화장의 새끼오리 생산성을 기초로 해당 농장의 생산성을 분석하고 지도를 통한 경영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9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 ... 종오리 검정업무 시행(2009년 8월호에 수록)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 오리협회가 가축개량·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종오리 검정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가축개량 총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 도축산관련연구기관과 함께 종오리개량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종오리 검정은 일반검정이 실시되며 종오리를 사육하기 위해 종오리 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오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종오리검사로 진행된다. 서류심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종오리의 경우 수입 시 첨부된 종오리 보증서를 수입 종오리 후대를 초생오리 인수 시 발생된 초생오리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로 검사한다. 서류심사에 합격된 종오리는 현지 종오리 심사를 통해 특성과 마리수를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18개월(78주령)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10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의무화(2010. 8. 11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8월 3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8월 11일부터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식당에서 오리고기의 원산지표시제가 적용·시행되며, 원산지의 표기는 메뉴판, 게시판 등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시행령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 허위표기시 점포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명예감시원을 발족, 농식품부 산하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공무원 등과 연계하여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2011

오리통계 가축동향에 수록, 오리고기 유통감시단 출범(2011년 4/6월호에 수록)

2011년부터 오리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가 나온다. 2011년 1/4분기부터 통계청 가축동향에 오리 사육두수 등 오리 관련 통계를 수록키로 한 것. 그동안 오리산업은 해마다 확대돼 왔지만 통계청이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가축동향에는 오리와 관련된 통계는 빠져있었다. 이에 2011년 1/4분기부터는 오리 사육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 생산량, 소비량 등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가 나와 오리 생산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협회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중임에도 수입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 오리산업을 스스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오리고기 유통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유통감시원을 위촉하여 오리고기 부정유통 감시 활동에 들어갔으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오리마을

타임머신

재민재민



11년 표지 디자인 변경 및 리뉴얼

- 김비아 작가의 '오리무중' 그림 삽입
- 타축종 협회지와 차별화
- '이달의 인터뷰' 꼭지 생성
- 발행부수 1,800부 상회
- 축산기자재 업체 및 다양한 광고로 확대
- 순수 연간구독자 전년대비 100%상승



10년 표지 디자인 변경

- 애니메이션에 오리를 접목
-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협회지로 전환
- 순수 연간구독자 생성



09년 표지 디자인 변경

- 매월 주요뉴스 사진이 표지로
- 오리 선진국 연수 내용 수록



~2008 쭉쭉~
오리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표지로

06. 7. 제37호

- 월간 오리마을 발행
- *비정기적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전환
- 협회지에 판권 수록
- 발행부수 1,200부로 확대



1996

2010

96.4.15 제1호 오리마을 창간
6P 내외 분량
A4사이즈 갱지 '소식지' 개념,
협회사업 추진일지, 통계, 협회소식 내용 등이
수록

98.7.15 제3호 표지 생김
- 주요내용을 표지에 게재하기 시작
- A5로 사이즈 변환, 16P로 늘어남
- A4갱지에서 제본양식으로
UP GRADE
- 축산법령 게재 시작

오리마을 창간 목적의정
1. 오리마을 창간 목적
2. 오리마을 창간 목적
3. 오리마을 창간 목적
4. 오리마을 창간 목적
5. 오리마을 창간 목적
6. 오리마을 창간 목적
7. 오리마을 창간 목적
8. 오리마을 창간 목적
9. 오리마을 창간 목적
10. 오리마을 창간 목적



99.1.15 제7호
오리마을에
광고 게재 시작

99.4.15 제 9호
표지 칼라 인쇄 제본



99.6.15
회원가입안내 첫 수록



2000

01. 1.15
내지 간 광고 등록 시작

01. 5 제20호
- 책 모습으로 변형
- 오리사진이 표지로 등장!
- 광고 칼라 게재 시작!
- 취재기사 및 오리 사양관리 수록 등
내용 고급화, 기획특집 기사 게재
'시작, 외주원고 첫 게재



2005

04~05년
발행부수 4~500부

05년 ~
육용오리 관리 매뉴얼 제공



오리마을 시계
지금은
2011년시 10월분